

# “아권 탈호남, 민주진영 주도성 약화.. 호남 위기”

## “지역경제 성장·인재육성 방안 마련해야” 호남미래포럼 ‘호남발전 간담회’서 주장

“근래에 와서 호남은 민주화 진영에서도 점차 그 주도성이 약화돼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아권 내부에서도 호남 출신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며, ‘탈호남론’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년 호남발전 간담회’에서 박만홍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은 “지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을 거치면서 호남은 영남패권의 직접적 배제 대상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호남은 보수 주류세력으로부터는 소외되고 배제된 반면,

민주화 진영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이 의도적으로 호남 배제의 국가운영을 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미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지배권력의 지역적 편차가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은 “광주·전남의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제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 대규모 이벤트를 지역경제 성장의

계기로 활용 ▲고령화와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동안 광주·전남의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이라며 “지역민들이 그동안 가져온 소비도시, 가난한 도시라는 부정적인 심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최근에 호남인재들의 사회적 기여가 과거보다 못하다거나 뛰어난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호남인재들은 우리 역사의 자존과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등불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현실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은 “중앙

정부와 지역정부, 그리고 주민과 시민들이 도시·지역·국가의 존재 이유를 무엇을 갖고 측정하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공유비전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호남미래포럼’이 충청·영남·강원 등의 비슷한 조직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유비전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에 철학과 지혜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남미래포럼 한갑수 공동대표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제는 충청도에도 밀리고 있는 호남의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이를 이끌고 나갈 인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포함한 지방색의 틀이 아닌 국가의 미래 균형발전 틀 아래서 총총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 호남은 물론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착실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 6·4 지방선거 현장

###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 서구의원인 이 이사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살아있는 자치시대를 열고,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 간 달빛혁명에 나서겠다”고 무소속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광주가 외치면 대한민국이 메아리치는 광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되찾아 ‘광주의 기’를 살려내겠다”며 “광주의 기가 살아야 할 때 민생도, 경제도, 인권도 생기를 되찾고 차세대 지도자의 출현과 정권교체의



꿈도 품을 수 있다”며 “만년 정치의 전략적 선택지를 벗어나 정치의 주체적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이 이사장은 광주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경제신문, 한국일보 경제부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 윤장현 새정추 공동위원장 기아차 광주공장 방문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해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강조했다.

2003년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윤 위원장은 이날 기아콘 노조 광주지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기아차 연간 60만대 생산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경영진의 전략적 선택뿐만 아니라 광주



공장 직원들의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기아차의 성공적 경영으로 100만대 생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25일 출판기념회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은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 광주 북구 풍향동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경제전문가 조호권과 시민이 믿는 행복한 변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장은 이 책에 7년여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와 대안, 작은 공동체와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광주의 미래를 제시했다. 영암 출신인 조 의장은 (주)서울증권 최연수 지점장과 본부장을 거친 경제전문가 출신으로, 재선의 시

###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명퇴 신청

지방선거 목표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남도 배용태 행정부지사(59)가 22일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지난 1984년 행정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배 부지사는 지난 2004년 목표시장 권한 대행시 국제축구센터 유치, 부주산 파크골프장 조성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 육상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해상으로



전환, 요트마리나 기본 계획 수립 등 해양 관광에 중심을 둔 행정을 펼치는 등 한 발짝 앞선 행정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는 오는 2월 말 정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허문수 광주시의원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허문수(민주·광산 2) 광주시의원이 22일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거울삼아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을 실현하고 따뜻한 광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언제나 광산구민과 함께 울고, 웃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창조적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새롭고 힘찬 광산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녹색 광산 조성 ▲복지정책 구현 ▲교육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교육 시행 ▲첨단기술과 친환경 농업을 창조적으로 결합시켜 농민



이 잘사는 지역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심부시추 시연회 지켜보는 강운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22일) 심부시추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과 함께 서구 치평동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350톤 규모의 워터해머를 이용한 심부시추 시연회를 지켜보고 있다.

##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

### 민주, 선관위에 질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의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선물한 ‘박근혜 시계’를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이 손목시계는 1인당 남성용·여성용 5세트(개수로

는 10개)씩 전달됐는데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원의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활용’을 언급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홍 사무총장은 선물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6월4일 잘 안 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라며 6·4지방선거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 의원은 같은 날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며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만든 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선거법 위반 사례다”며 “박 대통령 역시 귀국 즉시 지방선거에서 중립선언을 해 지방선거의 공명정대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앞뒤 안 가리고 정치공세를 하고 보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무책임한 ‘내뺄기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1. 물 건 : 2013타경 10497(1), 낙찰물건(근린주택)
2. 기 간 : 1년 6개월 정도
3. 보 장 : 근저당 설정
4. 투자금 : 1억원
5. 수익률 : 월10% 확정(년 15%), 기타
6. 내사 방문 상담 요망 (수기동 제일OP 2001호)

##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물건 사실 분! 싸게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